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입장을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 등 온갖 번뇌를 참는 인욕의 실제적인 공부에는 '절 하기'만큼 좋은 게 없다. 매일 점심 때마다 108배로 인내를 기르는 명성여고 학생들.

벌써 오래 전 일이다. 지금은 세상이 다 아는 중앙 철학자 K씨가 한 학술세미나 장에서 논문을 집어던지고 뛰쳐나온 적이 있다. 그 일을 두고 동양철학계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 철학자가 학술 토론회에서 분(憤)을 못 참고 원로 교수들 앞에서 배은망덕한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당사자와 그의 지인들은 보수적인 동양철학계에 환멸을 느껴, 항의표시로 논문을 던지고 학계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

위해서 인욕이란 참을성의 덕행을 깨우쳐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실 우리는 남과 싸워 이기려는 위세는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볼 겨를은 없다. 하지만 불자들이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보다 자신이 다. 탐욕과 성냄의 대상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번뇌가 투영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며, 그 마음을

慈相·慈觀 등 6가지 방법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권의 불서를 집필했지만, 당시의 사건은 격렬한 논쟁과 그로 인한 분노, 논쟁의 후유증을 드러낸 상징적인 일로 회자되고 있다.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니, 도를 행함에 있어서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법구경)이라고 설했다. 특히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분노와 욕심을 관찰하고 제거하는데 적합한 관법(觀法) 수행은, 인욕의 가장 큰 극복대상인 분노를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다.

- ①자상(慈相)을 얻고 ②자관(慈觀)에 전념할 것 ③업은 자신의 것임을 생각할 것 ④자관의 좋은 점과 분노의 해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 ⑤분노를 잘 다스리는 선지식을 가까이 할 것 ⑥자관의 이로움과 분노의 불이익에 대한 말을 할 것.

오늘날은 1분1초를 다투는 경쟁의 시대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때로는 서로에게 분노를 준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에는 불평과 불만을 품거나 쉽게 화를 내, 스스로와 주위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무엇에 욕심을 내며 괴로워하는 이를 위해서는 보시라는 베품의 실천 덕목을 분한 마음과 성내는 이를

김재경 기자

7월 17일 (수)

■정토수련원 '깨달음·나눔의 장' =문경 정토수련원에서는 17-21일까지 4박 5일간 '깨달음의 장·나눔의 장' 수련회가 열린다. 바쁜 일상에 쫓겨 '참나'를 잃어가는 현대인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수련마당. 참가비 20만원(054)571-6031

7월 18일 (목)

■제기연대 '경영관리자 과정 강좌' =참여불교 제기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는 20일까지 북악파크 호텔에서 '3기 경영관리자 과정'을 실시한다. '21세기 사찰모형탐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정에

신행 캘린더

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교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 사찰운영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선착순 30명. (02)745-7799

7월 20일 (토)

■동화사 '백고좌 대법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은 20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민족화합 평화통일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초창 법사로는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을 비롯, 전국 5대총림 방장스님과 중견스님들이 나선다.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53)985-4404

■양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마당'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7월 20일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부산진구 파워(power)1318 가곡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청소년 음악동아리를 대상으로 가곡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2곡(우리가곡:1곡, 자유곡:1곡)을 준비해야한다. (051)868-0750

7월 21일 (일)

■대구불교사회복지회 '108사찰순례' =단순한 사찰 순례는 싫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찰순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불자라면 '108사찰 순례'에 참가해 보자. 매달 세 차례 기도순례를 마련하고 있는 대구불교사회복지회가 이번에는 경북 봉화 청량사



▷'108사찰순례단' 회원들이 회합회포모습. 참가비는 2만5천원. (053)475-1080

7월 22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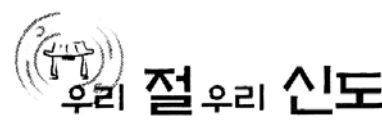
■영남불교대 '어린이 불교학교'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21일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초·중·고학생 및 유치부(1000명 선착순)를 대상으로 하는 법회에서는 만화영화 상영, 레크레이션, 단주만들기, 사경기도 등을 한다. 또 참석

자 전원에게 수계증, 수료증, 불자 T셔츠, 법요집을 지급한다. 회비 5천원. (053)474-8228

7월 23일 (화)

■불교자원봉사단 '푸른서울가꾸기 자원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나무와 숲에 관한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이론교육 후 가로수와 공원의 나무를 직접 가꾸는 현장학습도 이뤄진다. 교육 수료 후에는 나무와 결연을 맺어 아픈 나무를 관리하는 활동도 펼칠 수 있다. 어린이, 초·중·고생, 일반인, 또는 가족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 (02)723-6258

말보다 실천 먼저... '그림자 보살'



서울 약왕정사 신도회 이정순 부회장

이정순 보살(61·법명 정법수, 이 보살을 만나기 전, 서울 수유동 약왕정사 현오 스님에게 먼저 소개를 받았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 '내 절 내 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찾아가 도와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 수지침과 약초를 들고 전국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보살은 온갖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적'해낸다. 이 보살의 활동은 약왕정사 내에 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이 보살은 '우리 절 남의 절 가릴 것 없이 어려운 사찰을 찾아다니며 보살행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자원봉사단체인 '동심회(同心會)'를 결성했다. 약왕정사 신도 15명과 의기투합, 동심회의 산파역을 했던 이 보살은 회원들과 함께 인근 사찰 신도의 애경사를 행하는 것은 물론, 서울 강북 지역 복지관을 일일이 돌며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문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도움



▷자원봉사단체 '동심회(同心會)' 회원들에게 이정순 씨(가운데)가 수지침을 가르치고 있다.

복구형 인터넷 검색 교육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듯, 부처님을 항상 그리워했어요. 서른아홉 살, 다 늦은 나이에 부처님을 알게 된 거죠.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법화경>과 <유마경>을 강의하는 스님의 법문

내 절·네 절 가리지 않고 봉사, '동심회' 창립

'케어복지센터 佛舞寺건립에 헌신' 원 세워

을 주고 있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이 보살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데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었다. 이뿐만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 보살은 6년 전 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수지침'과 '약초학'을 배웠다.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강

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갈등과 괴로움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무척 반가웠어요.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이때 시작이 된거죠. 모든 사람이 생명이니 내 몸과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추천의 말

현오스님 약왕정사 주지



1996년 약왕정사가 서울 수유동 산동네 연립주택에 도량을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해 온 사람이 바로 이정순 보살입니다. 약왕정사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보살은 평소 '걸림 없는 보살행' 실천으로 대중의 화합은 물론, 사찰의 대소사를 손수 행하는 등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을 먼저 보이는 이 보살은 '내 절, 네 절을 가리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해 도움을 받고 있는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이정순 보살에게 '전국구 보살'이라고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올 9월 약왕정사는 케어복지센터 '불무사(佛舞寺)' 기공식을 갖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 '불교케어복지 전문도량'이 될 이곳은 앞으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약왕정사가 이렇게 복지 인가분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순 보살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있는 힘을 모두 다 쏟을 생각'이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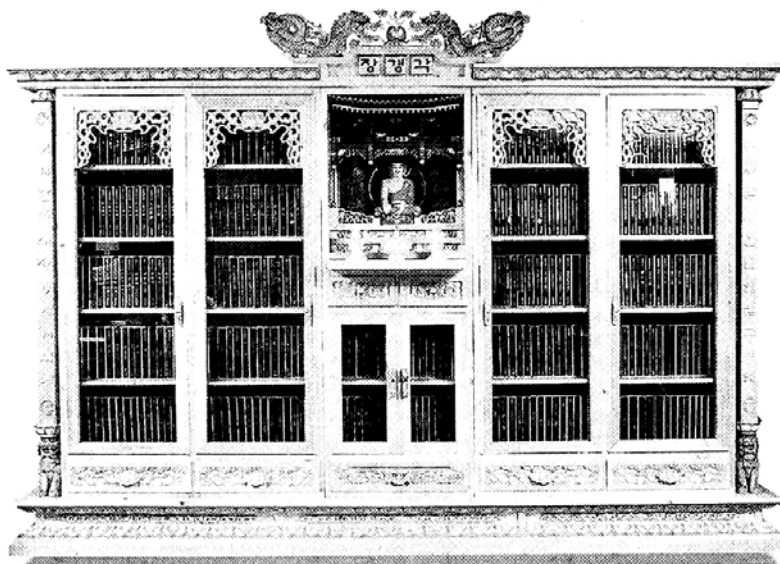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담장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점(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